

Australia Non Tariff Barriers Issue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원산지 라벨링 표기 의무화 20일 남짓 남아...



호주, 호주산 식품 소비 장려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 의무화하기로...

오는 7월 1일부터 식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가 적용되어 호주 슈퍼마켓에 진열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Country of Origin) 정보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함.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 호주 농업수자원부 장관은 원산지 라벨링 표기 의무화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호주산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호주산 식품 제조업체 역시 자부심을 갖고 식품을 진열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호주산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함

호주 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정 내용

지난 2015년 7월 21일, 호주 정부는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과 광범위한 협의 끝에 새로운 식품 원산지 표시(CoOL,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하였음. 그러나 호주 정부는 원산지 정보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음. 이에 호주 정부는 2016년 7월 1일, 식품 원산지 표시 제도를 새롭게 개정했으며, 식품 업체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함.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된 우선(Priority) 식품의 경우, 캥거루 로고를 표기해야 하며, 바(Bar) 차트를 활용하여 호주산 성분 함량 비중을 표기해야 함

Australia Non Tariff Barriers Issue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수입 식품의 경우 ‘Product of Thailand’, ‘Made in Canada’와 같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수입 식품 라벨에는 호주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캥거루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 한편, ‘made in’, ‘packed in’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만약 수입 식품 중 호주산 재료를 포함하고 있을 시 바 차트를 활용하여 호주산 성분 비중을 표기할 수 있음. 한편 수입 식품 중 재배, 생산, 제조가 단일 국가에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packed in’을 라벨에 표기해야 함. 반대로 재배, 생산, 제조가 한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나 포장만 다른 국가가 했을 경우, 라벨에 반드시 식품 재배, 생산 또는 제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고, 포장 라벨은 선택 사항임



원산지 라벨 규정 숙지 및 호주산 성분 강조할 필요 있어...

호주에서 호주산 식품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식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음. 수입 식품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으로 호주 수출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호주 수출 전, 라벨 표기 방법을 숙지하고, 만약 식품에 호주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라벨에 강조하여 호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산업부, 식품 원산지 표기 관련 공지

<https://www.industry.gov.au/industry/IndustrySectors/FoodManufacturingIndustry/Pages/Country-of-Origin-Labeling.aspx>

출처

Beef Central,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supermarkets 20 days away, 2018.06.12

호주 산업부, 원산지 라벨링 표기 관련 공지, 2018